



Planning special [5]

'06년 미주 지역 가금류 산업전망

By ROD SMITH
번역 : 본회 기획팀

2006년도 닭고기와 칠면조 시장은 두 가지의 주요 쟁점을 가지고 있다. 생산 전략 통합에 의한 영향과 고병원성 H₅N₁형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이다.

피드스터프지에 따르면 이 두가지 쟁점에도 불구하고 가금류 생산은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2005년도 닭고기 생산은 2004년 대비 3.4% 증가하였고, 증가폭이 2~3%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는 2005년 대비 3.4%정도 증가할 추세이다. 최근 이러한 닭고기 시장의 생산량 증가 추세는 최고의 증가를 누렸던 80년대 90년대에 비

하면 약 5~6% 정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USDA에 따르면 칠면조 생산은 2005년 0.4%, 2006년에 1.4%정도 증가할 추세이나, 2002년과 2003년의 급속도의 성장률에는 못 미칠 전망이다. 또 다른 통계에서 2006년에는 3~4%에 달하는 높은 성장을 전망하기도 하지만, 2002~2003년의 성장률에는 못 미친다는 견해는 마찬가지이다.

이 산업들은 2000년대 들어와서 역사상 최고의 수익성을 내고 있다고 하지만, 콜로라도 Gerrley, Lohr Associate의 Gary Lohr는 이 전망이 가공업 위주의 생산에 더 초점을 둔 정보로서, 실제 사육

수수는 시장 점유율을 멈췄다고 말했다.

Lohr에 따르면, 최근 4년간의 닭고기 시장과 최근 3년간의 칠면조 시장의 수익성에 의거하여 내년 도 시장에서는 그 생산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중요한 외일드카드

아시아와 유럽에 발생, 그리고 서반구에 퍼지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영향은 이러한 성장전망을 방해하고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의 근절을 위한 전세계적인 대량의 가금도축은 미국의 닭고기와 칠면조 시장에 수출 기회를 열어주었다.

아시아와 유럽 소비자들은 가축과 가금의 질병에 경계하는 특이한 경향이 있다. 이것은 과잉반응일 수도 있고 원산지에 적의를 표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것은 미국의 특히 dark meat 같은 부가적인 축산물가공시장에 가격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최근 몇 주 사이에 닭고기와 칠면조 수출량의 감소와 특히 닭다리부분육에 약간 적의적으로 작용한 가격이 이러한 사건의 증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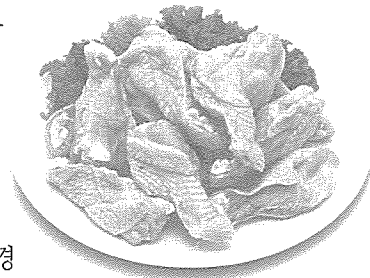
루마니아의 경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1마리의 거위에서 발견되었을 때 닭 소비량은 40%가 감소하였고, 멕시코의 경우 질병에 대한 우려로 한 주 사이에 닭 가격이 kg당 13페소에서 4페소까지

떨어졌다고 Aho는 밝혔다.

이것이 국제적인 상황이라면 문제는 더 커진다. 하지만, 칠면조 최대 수출국이자 닭고기 제2의 수출국인 멕시코에서 이 질병이 발견된다고 닭고기 수입 금지국인 미국에서도 이 질병이 발견될 것인가?

투나잇 쇼 진행자 Jay Leno는 “닭고기 수프는 감기를 치료하기도 하지만 인플루엔자를 주기도 한다.” 라는 말을 했다. 그는 미국은 조류 인플루엔

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 전세계도 전반적으로 벗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구전홍보효과로 이어질 때 시장에서 떠날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닭고기 시장과 칠면조 시장은 최근 무역장벽으로부터 수출 기반을 재건하고 있다. 2005년 닭고기 수출은 전체 생산량의 15%로 '04년 대비 12% 증가했고, 전체 생산량의 10.6%가 수출된 칠면조는 '04년 대비 31.6%가 증가했다.

닭고기와 칠면조의 수출량은 생산량 증감률에 맞게 2006년도에도 증가하리라고 예측된다.

분석가들은 닭고기와 칠면조 수출시장에서 H₅N₁에 의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금분야에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㉔

자료출처 : 「Feedstuffs」 11월 14일자